

전남국제교육원, 다문화학생 조부모나라방문 프로젝트 성료

필리핀인 자녀 11명·캄보디아 출신 자녀 11명 총 22명 대상 실시 다문화사회 이해 및 건강한 자아정체성 찾아가는 자녀성장 프로젝트

전라남도국제교육원은 12월 5일~9일까지 3박5일의 일정으로 필리핀(마닐라)과 캄보디아(프놈펜/씨엠펙)에서 2022 다문화학생 조부모나라방문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조부모나라방문 프로젝트는 전남에 거주하는 부모의 출신국가가 필리핀인 다문화 가정 자녀 11명과 캄보디아 출신국가 다문화 가정 자녀 11명 총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조부모나라의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조부모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고 현지 가족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으로써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고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자녀성장 프로젝트다.

필리핀은 팍팍한 폭포, 호세리잘기념공원, 마닐라대성당, 산티아고요새 등을 둘러보며 필리핀의 빼어난 자연환경과 역사현장을 둘러보고 현지 가족들과 문화체험을 함께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또한 캄보디아팀은 수상학교, 톤레삽호수, 앙코르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캄보디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갖았다. 더불어 프놈펜한국국제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양 기관이 상호협력하여 국제문화 체험 및 학생들의 활발한 교육 활동 교류를 약속하였다.

이번 캄보디아를 방문한 한 참가학생은 "캄보디아를 처음 방문해 외할머니와 삼촌을 만나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고, 어머니처럼"

캄보디아가 우리나라와 밀접한 문화·경제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상 이상으로 발전된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 크메르어를 열심히 배워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의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허광양(국제교육원장)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조부모나라의 문화이해를 넘어 조부모나라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교육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부모나라방문 프로젝트는 지난 2018년 베트남과 2019년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앞으로 매년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환기자



담양교육청, 연말연시 청렴 플로깅 캠페인

담양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 지역의 관광 명소 중 한 곳인 주월산 용마루길에서 '청렴 플로깅(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자연보호활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관광 명소 주변을 정화하면서, 공직자간이 느슨해질 수 있는 연말연시를 맞아 담양교육지원청의 청렴 문화 확산과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실천 의지를 홍보하기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속 교육장을 비롯한 참여 직원들은 담양 호국민관광지 주차장에서부터 용마루길까지 총 4km 구간에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청렴은

미래를 위한 가장 큰 투자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물티슈를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기관의 청렴 의지를 홍보하였다.

담양교육지원청은 지속적인 청렴교육과 함께 청렴빙고개입, 청렴UCC 영상 제작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속 교육장은 "전남교육 대전환과 모두가 행복한 담양교육을 위해 앞장서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담양교육지원청이 지역의 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지역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교육 실천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고흥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그림자극 공연 운영



고흥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고흥푸른꿈유치원과 녹동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그림자극 공연'을 운영했다.

연극동아리 '꿈랑', 그림자극 '아낌없이 주는 나무' 공연

고흥 마을교육공동체 연극동아리 '꿈랑(꿈꾸는엄마랑)'이 소품제작부터 대본, 음향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작 과정을 직접 준비하였으며, 쉐 실버스타인 원작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주제로 한 공연을 선보였다. 13일은 녹동성바오로 유치원, 14일은 포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녹동초등학교 한 학생은 "평소 알고 있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를 그림자극을 통해서 보게 되니 내용이 더 생생하게 전해져

왔다. 그림자극을 처음 경험해보는데 재미있었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의 그림자극을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꿈랑'은 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2019년 결성된 연극동아리로, 인형극, 그림자극 등 공연을 앞서 선보인 바가 있으며 2021년부터는 고흥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더욱 활발하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고흥=기동채재본부

광양교육청, '용강마을교육공동체 한마당 축제' 개최

용강마을교육공동체 광양용강중학교에서 마을 축제 열어

광양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광양용강중학교에서 용강 지역민과 광양용강초, 광양마로초, 광양용강중학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당 축제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광양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용강마을교육공동체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1부 공연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광양용강초 난타부, 광양마로초 댄스부와 음악놀이, 광양용강중학교 댄스부와 밴드부, 광양용강중학교 교장선생님의 기타공연이 진행되었고 2부 부

스에서는 먹거리나눔과 판매, 아나바다장터가 운영되었다. 마지막으로 김제동의 강연으로 "부모와 자녀 세대간의 소통"에 대한 공감토크를 진행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용강마을교육공동체 대표 강필성은 "이번 행사가 있기까지 기관과 단체의 대표들이 협의하여 진행되었고 각 단체별로 역할을 나누어 부스운영, 공연, 학생 인솔지도 등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많은 용강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



며 앞으로도 좋은 전통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양=김현근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